

## 다문화가정 아동의 조음능력 및 음운변동 특성

Articulation Ability and Phonological Process in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류현주\* · 김향희\*\*\*\* · 김화수\*\* · 신지철\*\*\*

Hyun-Joo Yoo · Hyang-Hee Kim · Wha-Soo Kim · Ji-Cheol Shin

### ABSTRACT

The present study examined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s articulation accuracy and phonological process using Assessment of Phonology and Articulation for Children(APAC), and compared them with normally developing childre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4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between ages 3 years, 6 months and 3 years, 11 months. The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s articulation accuracy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normally developing children's. In case of the normally developing children, phonological processes the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showed were observed at a younger age and did not appear at the age of the children participating in this study. The Japanese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and the non Japanese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showed different rate of the changes. This result shows that articulation development in the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may be different among them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and that the children's error patterns are related to their mothers' native languag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proposed to be applicable to articulation assessment and treatment.

**Keywords:** multicultural family, articulation ability, phonological process

### 1. 서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내용의 명확성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전달하는 발음도 정확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아동들은 이러한 조음능력을 큰 어려움 없이 획득하게 된다. 그런데 일부의 학령전기 및 학령기 아동들은 연령에 맞지 않는 부정확한 발음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조음음운장애(articulation and phonological disorders)를 겪을 수 있다(김민정 등, 2005). 조음음운장애의 원인은 기질적 원인과 기능적 원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기능적 원인의 경우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파악하기가 어렵고 조음에 미치는 영향도 상이하여 개인차와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는 좀처럼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급속한 사회의 변화와 발달로 인해 보다 실효성 있

\*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협동과정

\*\* 루터대학교 복지재활학부 언어치료학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는 연구를 위해서는 과거에는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다양한 환경적 변수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 중 하나가 결혼이민자여성의 증가로 인한 다문화 및 이중언어 환경이다.

다문화가정은 현재 국내에 정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을 통상 의미하나(권수진, 2007),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대상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정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여성 가정으로 한정하여 정의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으로 정의한 결혼이민자여성 가정에서 아동이 태어나면서부터 한국어와 어머니의 모국어에 동시에 노출된 경우를 이중언어 환경에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이후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가정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다문화 및 이중언어 환경에서 성장하는 아동의 수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다문화가정 아동은 점차 증가하여 2006년 전국을 기준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7,998명(초등학교 85%, 중학교 11.6%, 고등학교 3.6%)으로 2005년 6,121명에 비해 30.6% 증가하였다. 또한 미취학 자녀를 포함할 경우 그 숫자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10년 뒤에는 읍이나 면 단위 이하의 농촌지역에서 외국인 여성과 그 자녀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안원석, 2007).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연구자들은 단일언어 환경 아동뿐 아니라 다문화 및 이중언어 환경에서 성장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발달과 조음 및 음운능력에 관해 연구하고 이중언어 환경 아동이 보이는 특성을 보고하고 있다. 다문화 및 이중언어 환경에서 성장하는 아동의 조음능력을 살펴 본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이중언어 환경의 아동은 단일언어 환경의 아동과 상이한 오류양상을 보인다는 점이 일치하였다. 다문화 가정환경 속의 아동들은 언어발달 과정에서 각 나라의 음운 체계가 다른 데에서 비롯되는 혼란을 경험하거나 모국어와 부차적인 언어 사이의 간섭현상을 겪을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음운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송향근, 2004). 우리보다 먼저 다문화 및 이중언어 환경에서의 언어발달에 관심을 갖고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던 서구사회에서도 부차적인 언어와 모국어의 영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중언어 환경에서 자라는 아동들은 자음정확도가 단일언어 환경 아동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에도 단일언어 환경의 아동과 상이한 오류형태를 산출하였다(Goldstein & Washinton 2001). 우리말의 경우에도 이중언어 환경 아동의 경우에는 긴장도 및 기식도에 대한 음운변동이 많이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권미지·석동일, 2006).

다문화 및 이중언어 환경 아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점차 연구 영역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언어 관련 연구들은 수용언어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어서 아동의 표현언어 및 조음의 산출 경향이나 패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수준이다(박상희, 2006). 또한 조음 및 음운능력에 관한 일부 연구 결과도 이중언어 환경 아동의 조음특성을 대표하는데는 제한적이 면이 있다.

통계청(2005) 자료에 의하면 결혼여성이민자 66,912명 중에서 경기(24.9%)·서울(24.6%)·인천(6.1%)을 아우르는 수도권에 55.6%가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 44.4%가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고된 연구는 대체로 대구, 부산 및 광주(권미지, 2006; 박상희, 2006)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음운변동을 발달적인 것과 비발달적인 것으로 분류하여 출현빈도를 산출하고, 이중언어 환경의 아동이 단일언어 환경 아동과 달리 발달적 혹은 비발달적 음운변동에서 더 많이 산출하는 오류패턴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중언어 환경 아동과 단일언어 환경 아동의 조음 수행력에서 구체적 차이를

설명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비발달적인 음운변동 중에서도 유음의 비음화나 탈기식 음화는 단일언어 환경의 아동이 어린 연령대에서 보이다가 성장하면서 사라지는 이른바 나이에 적절한 오류패턴으로 보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음운변동을 정상발달과는 다른 비발달적인 것으로 분류하면 아동을 발달상의 맥락에서 평가하는데 제약이 있다. 즉, 이중언어 환경의 아동이 단일언어 환경의 정상발달 아동과 비슷한 발달패턴을 따르지만 발달이 느린 것인지 아니면 발달패턴 자체가 특이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아동의 언어발달 뿐 아니라 조음능력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박상희, 2006). 그러나 다문화 및 이중언어 환경에서 성장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조음 및 음운발달, 또는 정상적인 오류패턴 등을 연구한 자료는 제한적인 실정이다. 이 같은 정보부족으로 인해 자칫 아동이 이중언어 환경에서 언어를 습득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정상적인 과정을 조음장애의 요소로 잘못 평가하거나 반대의 경우로 조음장애의 요소가 있으나 평가기준의 부재로 인해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언어 차이의 관점에서 중요한 언어중재의 시기를 놓칠 수도 있게 된다. 이렇듯 한 대상자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기초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아동의 자음정확도와 음운변동에 대해 알아보고 정상발달 아동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차이가 있다면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아동 어머니의 조음능력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아동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 대상

2008년 3월부터 6월까지 서울, 인천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아동 만 3세 6개월~3세 11개월 26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아동들은 다문화가정에서 어머니가 주 양육자인 만 3세 6개월~3세 11개월 아동 중에서 (1)부모의 보고에 의해 정서 및 행동적, 사회 심리적인 문제가 없으며, (2)언어병리학 전공 대학원생의 평가를 통해 조음기관의 구조와 기능에 이상이 없고, (3)선별검사 시 청력이 정상범주에 속하는 아동들로 보호자가 연구 참여에 동의한 아동을 선정하였다. 또한 (4)표준화된 공식발달검사인 한국판 덴버 발달 선별 검사(Korean Denver Developmental Screening Test Revised, 이하 K-DDST-R)를 실시한 결과 12개 항목을 모두 통과하였고, (5)표준화된 수용어휘력 검사인 그림어휘력 검사에서 백분위수가 10%ile 이상이였다.

전체 수집한 26명의 아동 중 그림어휘력 검사 결과 백분위수가 10%ile 미만인 2명의 아동은 실험집단에서 제외하였고 총 24명을 실험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국적별 분포는 몽골 1명, 키르키즈스탄 2명, 필리핀 5명, 중국 3명, 일본 10명, 태국 2명, 베트남 3명이였다. 통제집단은 따로 선정하지 않고 아동용 발음평가검사(Assessment of Phonology and Articulation for Children, 이하 APAC)에서 제공하는 정상발달 아동의 자음정확도 및 음운변동 자료를 참고하여 실험집단과 비교하였다.

## 2.2 선별도구

### 2.2.1 설문지<부록 1>

다문화가정 중에서 자녀가 만 3 세 후반에 해당하고 주 양육자가 어머니인 가정을 실험집단으로 선별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또한 실험집단에 해당되는 가정의 경우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발달과 관련한 선행연구(안원석, 2007)를 기초로 하여 설문항목을 구성하고 그에 따른 기초정보를 조사하기 위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 2.2.2 그림어휘력 검사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언어능력을 평가하여 어휘력문제가 본 과제인 조음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동들을 평가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그림어휘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림어휘력 검사 결과 백분위수가 10%ile 이상인 아동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2.2.3 한국판 덴버 발달 선별 검사

본 연구에서는 신체 및 운동 발달이 정상 범주에 속하는 아동들을 선별하기 위하여 K-DDST를 간소화하여 검사하는 K-DDST-R을 사용하였으며 12 개 항목 중 하나의 항목이라도 통과하지 못하는 아동은 실험집단에서 제외하였다.

### 2.2.4 청력선별검사

휴대용 Screening Audiometer로 500, 1000, 2000, 4000 Hz에서 아동의 왼쪽, 오른쪽 귀에 20 dB로 들려주었을 때, 양쪽 귀가 모든 주파수에서 반응을 보여 청력이 정상 범주에 속하는지 확인하였다.

### 2.2.5 조음기관 구조 및 기능 검사

아동이 조음기관의 구조나 기능에 이상이 없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입술, 혀, 치아교합, 턱, 구개 및 편도의 구조를 살피고, AMR(alternating motion rate) 및 SMR(sequential motion rate)을 통해 조음기관이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았다.

## 2.3 본 검사 도구

아동의 자음정확도와 음운변동 평가를 위해 빈도가 고려된 70 개의 목표 자음을 다양한 음운환경에서 검사할 수 있고 오류패턴의 분석이 가능한 APAC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점수와 개정점수 중 개정점수를 이용하여 점수를 산출하였다. 일반점수란 생략, 첨가, 대치, 왜곡을 모두 오류로 채점한 것이고 개정점수란 생략과 대치만을 오류로 채점한 것이다 아동이 왜곡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을, 왜곡이 거의 없을 경우에는 개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지침에 따라 개정점수를 선택하였다.

## 2.4 검사절차

실험집단은 외국인 문화센터나 한글교실에 방문하여 그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중에서 아

동의 어머니가 한국어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만 3세 후반 자녀의 주 양육자인 가정을 설문지를 통해 선정하였다. 아동의 어머니가 설문지 작성에 어려움을 느낄 경우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가족이나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검사 장소는 센터나 해당 아동의 가정에 방문하여 아동이 편안함을 느끼면서도 아동의 발음을 잘 들을 수 있는 조용한 곳으로 아동의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가능한 분리된 공간에서 실시하였다. 검사는 정상발달 아동 선별을 위해 언어병리학 전공 대학원생의 청력선별검사와 조음기관의 구조 및 기능 평가를 먼저 실시하였으며, 다음으로 K-DDST-R 및 그림어휘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선별된 아동을 대상으로 본 검사인 조음평가를 실시하였다. 소요시간은 청력 및 조음기관 검사가 약 5분 내외, 그림어휘력 검사가 10~15분, K-DDST-R이 10분 내외, 조음평가가 약 10분 내외였다.

아동 어머니의 오조음된 한국어가 아동의 조음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어머니의 조음평가도 따로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조음평가 소요시간도 약 10분 내외였다.

정확한 조음평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아동과의 친밀감 형성이 중요하므로 검사 전에 아동이 검사자에게 익숙해질 시간을 충분히 가진 후 검사를 시작하였다. 또한 아동이 연속적인 검사로 인해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검사 중간에 쉬는 시간을 갖거나 검사를 나누어서 실시하였다.

## 2.5 자료 수집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해 검사 시 직접 아동의 발음을 전사하였으며, 각 평가 자료는 외부 마이크를 연결한 MD recorder(Sony, MZ-N707)로 녹음기록하고 검사 시 불충분했던 내용과 조음기관의 움직임을 검토하기 위해 동영상(Nikon coolpix P5000)으로 기록하였다. 동영상 촬영은 부모가 동의한 경우에만 동의서를 얻은 후에 실시하였다.

## 2.6 자료 분석

### 2.6.1 자음정확도 결과 분석

단어 반응을 보고 자음 말소리 70개 중 오조음한 말소리를 표시하고 오류유형을 적었다. 오조음한 발음한 개수를 합산하여 원점수를 계산하고 전체 말소리 70개에서 원점수를 뺀 정조음 수를 계산하였다.

### 2.6.2 음운변동 분석

단어 반응을 보고 오류패턴을 분석하였다. 오류패턴은 말소리목록 검사에 해당하는 70개의 말소리뿐만 아니라 단어에 포함된 모든 말소리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오류패턴의 적용 시 주의할 점은 APAC의 지침에 따라 시행하였으며 APAC의 음운변동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1. 전체단어 변동의 종류, 정의 및 예

음운변동	정의	예
음절생략·축약	음절이 생략되거나 축약됨	‘할머니’→[함미]
어말중성 생략	어말중성이 생략됨	‘책’→[채]
반복·자음조화	동일한 음절이나 자음이 반복됨 단어에 있는 다른 자음의 조음장소나 방법이 반복됨	‘빳’→[빽]
전형적 어중 단순화	어중중성이 생략되거나 어중초성의 조음장소에 역행동화됨 연이은 자음이 합체됨	‘침대’→[친대]
비전형적 어중 단순화	어중초성이 생략되거나 어중중성에 의해 순행동화가 일어남 조음방법이 동화됨	‘침대’→[침배]
어두초성 생략	어두초성이 생략됨	‘모자’→[오다]
첨가	음소가 첨가됨	‘우산’→[무산]
도치·이동	자음의 위치가 서로 바뀌거나 다른 위치로 이동함	‘빨대’→[딸배]

표 2. 음소변화 변동의 종류, 정의 및 예

음운변동	정의	예
긴장음화· 탈기식음화	평음이나 격음이 경음으로 변하거나 기식 자질이 없어짐	‘포도’→[뽕도]
이완음화	경음이나 격음이 긴장 자질이 없는 평음으로 변함	‘싸워’→[사워]
기식음화	평음이나 경음이 기식 자질을 갖는 격음으로 변함	‘뽕’→[뽕]
유음의 비음화· 파열음화	유음이 비음이나 파열음으로 변함	‘고래’→[고대]
유음의 단순화	유음이 생략되거나 과도음으로 변함	‘고래’→[고애]
파찰음·마찰음 의 파열음화	치조마찰음이나 파찰음이 파열음으로 변함	‘색종이’ →[택뽕이]
파찰음화· 구개음화	치조음이 파찰음으로 변하거나 경구개음으로 왜곡됨	‘없어’→[업져]
탈비음화	비음이 파열음으로 변함	‘머리’→[머리]
마찰음화	파찰음이 치조마찰음으로 변함	‘침대’→[심대]
연구개음의 전설음화	연구개음이 치조음이나 경구개음으로 변함	‘호랑이’ →[호라니]
양순음화	양순음이 아닌 자음이 양순음으로 변함	‘단추’→[반추]
연구개음화	연구개음이 아닌 자음이 연구개음으로 변함	‘우산’→[우상]
성문음화	/ㅎ/이외의 자음이 성문파찰음이나 성문파열음으로 변함	‘사탕’→[하탕]
치조마찰음의 치간음화	치조마찰음이 치간음이나 치음으로 왜곡됨	‘싸워’→[쓰ㅓ워]
파찰음의 치간음화	파찰음이 치간음이나 치음으로 왜곡됨	‘모자’→[모ㅓㅓ]
치조마찰음의 설측음화	치조마찰음이 설측음으로 왜곡됨	‘사탕’→[스ㅓ탕]

## 2.7 신뢰도

검사자간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전체 대상자 중 10%에 해당하는 세 명의 자료를 임의로 선택하여, 조음장애 치료 경험이 있는 언어병리학 전공 대학원생에게 오디오 자료를 분석하게 하여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이에 따른 검사자간 신뢰도는 90%였다. 또한 검사자 내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전체 대상자 중 10%에 해당하는 세 명의 자료를 임의로 선택하여, 첫 검사 후 1~2 주 내에 동일한 검사자가 오디오 자료를 통하여 동일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검사자내 신뢰도는 93%로

나타났다. 성태제(1995)는 신뢰도 검사 결과 70% 이상은 유의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고, 80~100%는 '신뢰도가 매우 높다.'로 분석한다고 하였다.

## 2.8 통계분석

본 연구의 결과는 SPSS(version 13.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적 검정을 하였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음정확도와 정상발달 아동의 자음정확도 자료와의 평균 비교를 위해 one-sample t-test를 실시하였다. 음운변동 분석을 위해서는 대상 아동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음운변동의 순위를 정하여 실험집단과 정상발달 아동의 음운변동 자료와 비교하였다. 유의수준은 0.05 미만으로 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음정확도 및 음운변동

#### 3.1.1 다문화가정 아동의 전체 자음정확도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음정확도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86.65%였고, 정상발달 아동의 자음정확도는 93%였다. 단일표본의 t 검정 결과, 다문화가정 아동 집단( $M=60.66$ ,  $SD=6.41$ )은 정상발달 아동 집단( $M=65.10$ ,  $SD=4.72$ )에 비해 APAC 정조음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p < .01$ ). 그러나 성별에 따른 정조음 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3.1.2 다문화가정 아동의 조음방법별 자음정확도

APAC에서는 자음계열별 점수인 조음방법별 점수의 경우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표준점수로 제시하고 있다. 정규분포를 가정한다면 대상자의 68.3%가 +1에서 -1표준편차 사이에 위치할 것이고 95.5%는 +2에서 -2표준편차 사이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1이내에 속하는 대상자는 정상범위로 -1에서 -2표준편차 사이에 속하는 대상자는 정상발달 범위에는 속하나 다소 지체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음훈련이 요구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김영태, 2006). 단, APAC에 제시된 표준점수는 정규화되지 않았으므로 원점수 분포의 편포가 표준점수에 그대로 반영되었음을 밝힌다고 제시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과열음, 비음, 유음, 마찰음의 수행력은 표준점수가 모두 -1표준편차 이내로 정상발달 범위에 속하였다. 단, 과찰음의 수행력은 -1에서 -2표준편차 사이로 정상발달 범위이나 다문화가정 아동이 정상발달 아동에 비해서 수행력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3.1.3 다문화가정 아동의 음운변동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가장 많이 보였던 음운변동은 대상자 중 46%가 보였던 과찰음·마찰음의 과열음화로 나타났다. 정상발달 아동의 경우에는 전체의 20%만 과찰음·마찰음의 과열음화를 보이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어 다문화가정 아동이 정상발달 아동에 비해 2 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정상발달 아동에서는 더 어린 시기인 2 세 6 개월~2 세 11 개월에 출현하고 3 세가 되면서부

터는 출현하지 않는 긴장음화와 연구개음화가 다문화가정 아동 중에서는 각각 긴장음화 8%, 연구개음화가 4% 출현하였다<그림 1>.

한편, 일본 다문화가정 아동이 가장 많이 보인 음운변동은 전형적 어중 단순화 13%와 유음의 단순화 13%로 나타났다. 정상발달 아동에게 많이 나타났던 파찰음·마찰음의 파열음화가 일본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에는 낮은 비율로 출현하였고 파찰음화의 경우에는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집단에서 특기할만한 결과로 나타났던 긴장음화 및 연구개음화의 출현은 모두 일본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관찰되었다. 일본을 제외한 다문화가정 아동이 가장 많이 보인 음운변동은 파찰음·마찰음의 파열음화로 38%가 나타나 정상발달 아동과 일본 다문화가정 아동에 비해 출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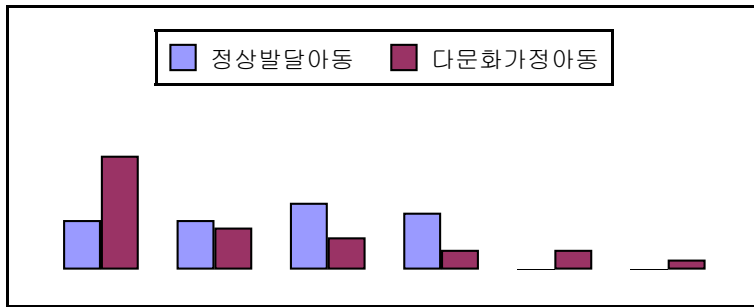


그림 1. 정상발달 아동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음운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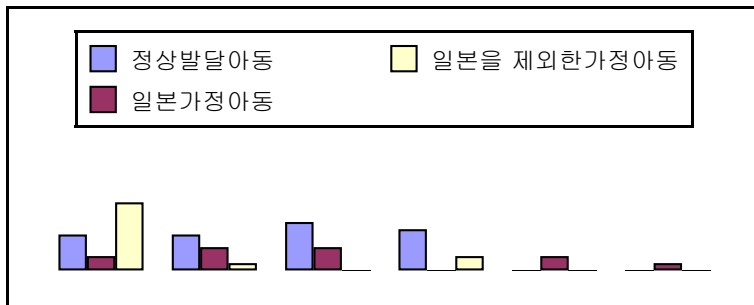


그림 2. 정상발달 아동, 일본 다문화가정, 일본을 제외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음운변동

#### 4. 논의 및 결론

다문화가정 아동이 정상발달 아동에 비해 자음정확도가 낮고 오류가 많은 이유는 음운변동의 결과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정상발달 아동의 경우 본 연구에 해당하는 연령보다 낮은 연령대인 2세 6개월~2세 11개월에 가장 많이 보이다가 점점 출현율이 줄어드는 파찰음·마찰음의 파열음화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에는 본 연구의 해당연령인 3세 6개월~3세 11개월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긴장음화와 연구개음화도 정상발달 아동의 경우에는 더 어린 연령에서 나타났다가 본 연구에 해당하는 연령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지만 다문화가정 아동에게는 긴장음화가 8%, 연구개음화가 4%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정상발달 아동의 조음발달 패턴과 유사하지만 초기에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황혜신, 황혜정, 2000) 단일 언어 가정과 달리 이중언어 환경에 노출되어 초기에 조음발달이 느리게 진행되는 데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권미지(2006)의 연구에서도 발달적 음운변동인 중성생략과 비발달적 음운변동인 이완음화 등에서 언어 환경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APAC에서는 이러한 분류 대신 오류패턴이 나이에 적절한지, 지체된 것인지, 특이한 것인지로 판단하게 함으로써 이중언어 환경 아동의 조음음운능력을 발달상의 관점에서 보다 입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평가기준은 아동이 보이는 오류패턴이 정상발달 곡선을 따르는지 혹은 조음중재가 필요한지 판단하는데 구체적인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정상발달 아동과 달리 긴장도 및 기식도의 변화가 많이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정상발달 아동에 비해 단순히 조음발달이 느린 것인지 아니면 특이한 음운변동을 보이는 것인지를 변별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특징이며, 이러한 원인으로 어머니의 음운변동과 아동의 조음발달상 특성과의 관련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평음, 경음, 격음의 세 분류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분류로 이러한 음운체계가 아닌 언어 환경에서 자라온 대부분의 결혼이민자여성의 경우 모국어의 영향으로 인해 정확한 분류체계대로 조음하는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긴장도 및 기식도에 있어 많은 오류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어머니의 오조음은 어머니가 주 양육자인 가정의 경우 아동의 조음발달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박상희(2006)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와 아동의 조음 관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밝혀 어머니의 영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통계적 언급에 그쳐 설명력이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과 어머니의 조음 관련성을 시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를 통해 아동과 어머니의 조음관련성을 검토하고 설명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아동이 어머니와 동일하게 긴장음화 및 이완음화를 보인 경우는 많지 않았지만 아동만 긴장음화 및 이완음화를 보인 경우는 그 비율이 적지 않음을 볼 수 있다<그림 1>. 이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긴장도 및 기식도의 변화에 있어 아직 체계가 확고히 잡히지 않은 아동이 오조음된 어머니의 발음을 듣고 아동의 조음발달과정에서 가장 먼저 발달하게 되는 경음으로 대처하게 되는 경우이다. 또 하나는 아동이 오조음 했을 경우에 어머니가 정확한 발음으로 수정해 주는데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오조음된 발음이 지속적으로 남아있거나 유지되는 경우이다. 임상적으로는 두 경우 모두 아동이 어머니 외에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아동의 조음 문제에 대한 대처 및 개선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어머니와 가족들 모두 어머니의 불완전한 한국어 능력이 아이들의 언어습득 과정에서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아이들을 보다 나은 언어습득의 환경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비교적 일찍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왕한석, 2007).

한편, 우리말과 비슷한 구문구조를 갖지만 조음에 있어서는 상이한 점이 많은 일본인 어머니 자녀의 경우 음운변동 순위는 1위가 전형적 어중단순화와 유음의 단순화로 일본을 제외한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가장 많이 보였던 파찰음·마찰음의 파열음화와 서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정상발달 아동에게는 좀 더 어린 연령대에 많이 출현하는 음운변동으로 오류패턴을 살펴볼

때 다문화가정 아동은 정상발달 아동과 유사한 오류패턴을 보이지만 조음 수행력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내에서도 어머니의 모국어 분류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사실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모국어에 따라 아동의 조음오류가 달라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는 다문화가정의 경우 아동의 조음발달이 정상발달 아동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지만 조음능력의 발달은 느릴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이 보이는 오류패턴이 발달상의 오류인지 다문화가정이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한 특이한 오류패턴인지를 고려하여 그에 맞는 평가와 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모국어를 통제하고 보다 다양한 연령대를 모집하여 언어학적으로 깊이있는 분석을 통한 결과도출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권미지. 2006. 이중언어 환경 아동의 조음음운 특성.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권미지, 석동일. 2006. 이중언어 아동의 조음특성 연구. 제 14회 학술발표대회. 한국언어치료학회, 271-276.
- 권수진. 2007.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아동과의 생성이름대기 특성 비교.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김민정, 배소영, 박창일. 2005. 아동용 발음평가검사(Assessment of Phonology and Articulation for Children, APAC). 서울: HBR & C.
- 김영태, 장혜성, 임선숙, 백현정. 1995. 그림어휘력검사. 서울: 서울장애인복지관.
- 김영태. 2006. 아동언어장애의 진단 및 치료. 서울: 학지사.
- 박상희. 2006. "이중언어환경 아동의 조음산출 경향." 2006년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언어청각 임상학회. 47-51.
- 설동훈.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 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 성태제. 1995. 타당도와 신뢰도. 서울: 양서원.
- 송향근. 2004. "핀란드어 모국어 화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 *이중언어학* 25, 113-127.
- 안원석. 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표현 실태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근. 1990. *한국관 덴버 발달 검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
- 왕한석. 2007. *또 다른 한국어*. 과주: 교문사.
- 황혜신, 황혜정. 2000. "이중언어(한국어-영어)를 하는 아동의 언어능력발달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1, 69-79.
- Goldstein, B. & Washinton, P. S. 2001. "Phonological patterns in typically developing 4-year-old Spanish-English bilingual children."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 32, 153-164.

접수일자: 2008. 7. 31

수정일자: 2008. 8. 27

게재결정: 2008. 9. 4

▲ 류현주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의료원 재활병원 3층 (우: 120-752)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협동과정  
Tel: +82-2-2228-3901 Fax: +82-2-2227-7578  
E-mail: primpam@naver.com

▲ 김향희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의료원 재활병원 3층 (우: 120-752)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협동과정 ·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교수  
Tel: +82-2-2228-3900 Fax: +82-2-2227-7578  
E-mail: hkim@yuhs.ac

▲ 김화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17 (우: 446-700)  
루터대학교 복지재활학부 언어치료학 교수  
Tel: +82-31-679-2300 Fax: +82-31-283-1505  
E-mail: whasoolang@ltu.ac.kr

▲ 신지철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의료원 재활병원 3층 (우: 120-752)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교수  
Tel: +82-2-2228-3713 Fax: +82-2-363-2795  
E-mail: jcsevrn@yuhs.ac

